

시선

사설

상생 요구되는 지역 공동체

대학가 지역경제가 고통 받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지연된 탓이다. 학생들이 주 고객인 대학가 상점의 특성상 매출은 방학 보다 학기 중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 수업일이 계속 미뤄지자 지역 유동인구는 늘어나지 못했고 매출 감소로 직결됐다. 외식업, 서비스업 등 학생들과 직접 대면해 영업하는 업종에서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났다.

대학가 지역경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열악한 상태였다. 서울시 자영업자 원센터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 회기동 자영업종 과밀도는 '위험' 단계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경계 단계인 '주의'보다 높은 경고 수준이다. 현 상황처럼 수요가 줄어들면, 경쟁이 과열된 지역이니 소상공인들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생 자영업자 생존율 또한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이었다. 막 창업한 자영업자들의 1년 생존율은 66.5%를 기록했다. 수치는 해가 지날수록 매년 떨어져 5년차 자영업자 생존율이 27.3%에 그쳤다. 이는 시 전체 평균보다 많게는 10% 이상 낮은 수치다. 코로나19의 여파까지 반영된다면 추후 대학가 지역경제 전망은 더욱 어두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돋기 위한 움직임이 우리학교에서도 시작된 것은 반운일이다. 지난달 20일 지역사회단체와 학생들이 임대료 인하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현수막을 붙여 임대료 인하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줄어든 매출에도 움이 되고자 포장 및 배달이 가능한 가

게들을 지도로 제작해 홍보하는 활동도 포함됐다. 추후 상점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일도 계획 중에 있다고 했다. 이는 공동체가 협력해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어려움을 함께 타개하고자 시작된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캠페인이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관계 속에서 유대를 강화했다는 점은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이점일 것이다. 때론 어려움을 나누고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넘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한 시작이다.

다시 방학이 가까워오고 있다. 코로나19는 확산과 감소 추세를 반복하며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열어붙은 지역사회가 활기를 되찾기 위해선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지역 사회에 건네는 온정의 손길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들어보자. 작은 도움부터 실질적으로 그들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방안 또한 계속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대학가에 지역 상생을 위한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대학과 지역사회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불가피한 재난 상황에서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이 동반된다면, 도래한 위기를 조금이나마 더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만평 - 세월은 흘러도 산천은 안다



'성별을 떠나' 능력대로

세시봉

문하령 (국제뉴스팀장)



여성에게 견고했던 국회의 유리천장에 작은 균열이 일었다. 국회가 73년 만에 여성 부의장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김상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오는 6월 본회의 표결이 남았지만 사실상 확정 상태다. 불과 20여 년 전 15대 국회 여성 의원이 전체 299명 중 9명으로 3%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성과다. 그동안 여성의 과소대표를 해소하기 위해 나름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국회 의장단에 여성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의 과소대표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한국 사회의 학연, 지연, 혈연의 카르텔을 끊어내려는 움직임 속에서도 성별의 영역은 좀처럼 수용되지 않는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 17대 국회부터 꾸준히 여성 부의장 선출을 위해 여성 의원들이 힘을 모았지만 남성 의원들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늦게 여성 부의장이 나오게 됐다. 함께 제안됐던 상임

위원장 여성할당제 역시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러한 이견은 대부분 "대표 선출은 '성별을 떠나' 정해야 한다"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유를 근거로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합리적' 판단이 바로 유리천장이다. 우리는 아직 성별 격차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2020년 세계 성 격차 지수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성 격차 지수(GGI)는 153개국 중에서 108위에 그친다. 이전보다 여권

“

여성 의원이

지금 추세대로 늘어나면

2086년 총선이 돼야

성비 균형이 맞춰진다

”

신장이 이뤄졌음에도 좁혀지지 않은 성별 격차는 여성 의원들이 여전히 비주류에 머물러 있다는 방증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성별을 떠나'라는 것은 또 다른 성별 격차를 허용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할당제는 성별 격차를 좁히는 조치가 선행돼야 의회 내 여성 비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했다. 특히 국회는 대의기구

로서 다양한 사회 집단의 대표성을 가지려면 각 집단의 구성을 반영해야 한다. 비당사자는 자의적이거나 시혜적으로 문제를 인지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없었다면 여성 부의장을 맞이하는 것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른다. 지난 2004년 '비례대표 50% 남녀교호순번제'로 여성 의원의 수가 대폭 늘어 이번 국회에서는 19%(57명)에 이르렀다. 역대 최다 여성 당선자 수지만 이마저도 국민 성비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 여성 의원이 지금 추세대로 최대 2%포인트씩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약 2086년 총선이 돼야 성비 균형이 맞춰진다.

초기 여성할당제는 강제이행규정이 없어 이슈만 촉발시키고 이후 총선에서는 허울로만 남아있었다. 이에 지난 2008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고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의 취지가 비로소 달성될 수 있었다. 반면, 지역구 여성 할당제는 아직 의무화되지 않아 대부분의 정당이 정해진 여성 할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이번 총선 역시 그랬다. 비례대표의석 비율이 15.7%로 여성 의원 비율보다 낮은 상황에서 의무화되지 않은 여성할당제는 유명무실해졌다. 제도가 그 값을 못하고 있는 지금, 국회는 두텁고 단단하게 쌓아올린 유리천장을 스스로 무너뜨려야 할 때다.

상처 가진 땅에서, 당신의 장례를 치르기까지

최재수첩

김지원 기자

kjw990327@knu.ac.kr



폭력은 상처를 남긴다. 몸과 마음뿐 아니라 공간에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추제를 위해 방문한 광주가, 상처를 안고 있었다.

귀찮을 법도 한 기자의 길거리 추재, 그러나 '5.18'이라는 단어에만큼은 모두가 일관된 반응을 보였다. 어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바삐 움직이던 시민들의 발걸음이 거짓말처럼 멈추는 게 그것이었다. 곧 추재수첩에는 "그때 내가...", "그때 우리 딸이 막 돌 지났었는가...", "그때 저희 삼촌이요..."로 시작하는 각양각색의 사연이 적혔다. 시민들은 손가락을 헤아리는 노력도 없이 당시의 나이부터 그날의 일정, 목격한 사망자의 인상착의까지 아주 세세한 기억들을 마치 어제 일처럼 들려주었다. 미처 적지 못한 손짓과 발짓, 어느 새 선핏대, 잡긴 목소리는 그들의 기억이 얼마나 생생한지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알 수 있었다. 그들에게 5.18은 내 소중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요, 40년 세월에도 잊히지 않는 폭력의 기억이자 사랑스러우면서도 아

픈 '아물지 않은 상처'라는 것을.

전일빌딩 10층에서 5.18관련 애니메이션을 보던 때가 생각난다. 시민들을 향한 사격 장면을 본 한 아이가 "엄마 저라면 국가가 뭐라고 안 해?"라고 물었다. "국가가 한 거야"하는 엄마의 대답이 이어지자 "뭐?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하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반문했다. 결국 대화는 "대통령이 한 거야"라는 짧은 대답으로 끝났지만 참혹한 장면 뒤에 이어진 아이의 질문이 국민을 향해 겨눠졌던 총구를 꼬집는 것 같아 씁쓸했다. 어쩌면 아이의 눈으로도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국가 폭력의 실재였기에 시민들 가슴속에 더 생생히 기억된 것이라 생각도 들었다.

사실 광주가 가진 상처의 성격을 단순히 국가 폭력에 의한 것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오랜 기간에 걸쳐 받았던 오해와 편파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지난달 12일 발표 명령자와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 등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활동 기간에 제한이 있고 수사권이 아닌 조사권만 가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따른다. 위원회에만 진상 규명의 부담을 지울 수 없는 이유다.

광주에 머무르며 얻은 깨달음이 하루에 있다면 시간은 그저 흐를 뿐이라는 것이다. 흔히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말을 하는데 5.18이라는 말에 멈추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그 말의 모순을 일깨워주었다. 시간은 그저 흐를 뿐이며 상처를 해결하기보다는 단지 그 위를 덮듯이 지나는 것임을 배웠다. 일례로 5.18을 배경으로 하는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는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는 말이 나온다. 장례식은 죽음을 매듭짓는 일인데 그러지 못해 당신의 죽음이 아직 내 일상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구절이다. 이때 소설 등장인물은 불과 얼마 전 사람들이 피흘리며 죽어간 광장 분수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무너진다. 그저 흐르며 아직 딱지 앉을 기미도 없는 상처를 덮으려는 시간에 대한 분노와 슬픔 때문이었을 것이다. 광주의 상처를 시간에만 맡길 수도 없는 것이다.

위원회에도 시간에도 광주의 상처를 맡길 수 없다는 글에는 필연적으로 "그럼?" 하는 물음이 따를 수 있겠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수혜자인 우리 역시 광주의 상처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대답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냥 "언젠가 5월의 광주를 걸어보라"는 말을 전하고자 한다.